

기획특집

경주캠퍼스 설립 10주년

1. 마스터 플랜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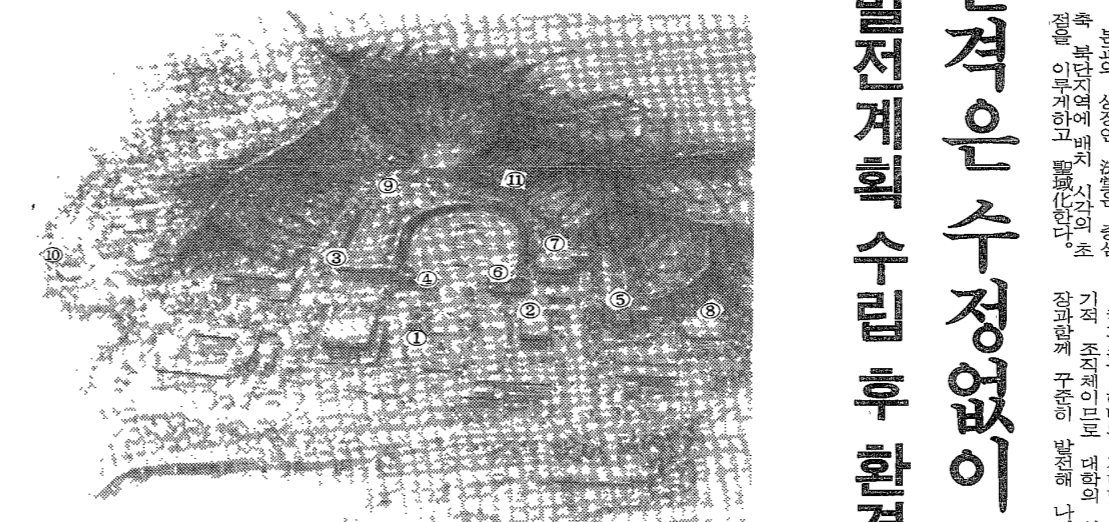
본 캠퍼스의 설립 목적은... (text continues)

◇관심는 차례

- 1) 기획진단에 들어가며
2) 마스터 플랜의 수정안
3) 무엇이 문제인가 (나, 너, 그)
4) 앞으로의 발전방향 (지평)

균형발전시킬 장기적 안목 절실

2. 慶州캠퍼스의 초기 발전계획
남부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3. 3년내 캠퍼스의 발전방안
본 캠퍼스의 3년내 발전방안은... (text continues)

광장 중심의 행정·봉사기능 시설물 배치 필요

광장 중심의 행정·봉사기능 시설물 배치 필요
본 캠퍼스의 광장 중심 시설물 배치는... (text continues)

법과대 초청 서준식씨 강연 초록

서준식씨 강연 초록
법과대 초청 강연에 참석한 서준식씨는... (text continues)

지역발전의 열쇠는 문화

지역발전의 열쇠는 문화
문화는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열쇠입니다... (text contin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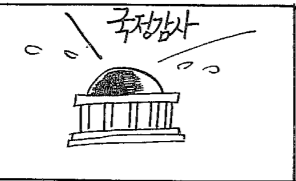
인간의 원동력 부정하고 국민적 자존의욕

인간의 원동력 부정하고 국민적 자존의욕
인간의 원동력을 부정하고 국민적 자존의욕을... (text continues)

POSCO메시지 - 취업편
"20대의 의지가 뿌리를 내릴 토양."
모종을 옮겨심을 때는 토양의 조건을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식물은 산성의 토양에서 뿌리를 잘 내리는가 하면 염기성토양을 더 좋아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여로니모

오 황 <74>



통일시선 I · II

김규동 · 고은 엮음

분단시대를 함께 살아온 이 땅의 시인들이 통일 문제를 시로 형상화시킨 것을 염석하여 도서출판 눈에서 발간하였다. 제1권 「그대는 북에서 나는 남에서」, 제2권 「통일은 진정 그 어느 때에」 등 두권의 책에는 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분단을 극복하려는 민족문화의 주춧돌을 사색한 시인들이 실려있다.

<분권·24310원·3천5백원>

서울의 양심

정희수 지음

장애자를 돌리싸고 일어나는 부조리와 반사회적, 반장애 자적 정채와 이익집단들이 벌이는 비인간적 범죄행위를 고발한 정희수씨의 시집 「서울의 양심」이 출간되었다. 「증인신문」 17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8편, 「처음에게」 23편의 시들에서 오늘날 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지적하고 있다.

<시인사·109원·2천원>

정산이나 답습이나

한완상 지음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와 제6공화국 출범이후 정치체제의 변화, 권력담지자의 교체등을 묶어 정치 사회평론집으로 엮은 이 책은 80년대 이후의 정국흐름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간행되었다. 「새시대 새책」 「누가 주인인가를 보여주자」 등의 단락에서 우리민족의 민주·자립역량을 키워주고자 하였다.

<정우사·263원·3천2백원>

"우리의 혼이 숨쉬는 진짜 우리文化"

일정한 사회는 일정한 문화로 빛어낸다. 우리민족은 본래 배달민족으로 배달민족의 문화로 지녀왔다. 5천년의 역사와 함께 우리 삶에 고유한 영역으로 자리했던 정신이나 관습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주위에 머물고 있다.

현재 국민학생에서부터 청소년에게 이르기까지 35명이 회원으로 민족행사나 놀이마당에 초청되어 공연하거나, 전수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번씩 강습회를 열고 있다고 한다. 전수생들의 대부분이 전통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몇몇 사람들로 구성된 전통문화 살리기단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외래문화의 무조건 수용으로 단절위기 전통문화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

주요 삼민이나 민족들의 문화로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 받으며 생활상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재창조되어 왔는데 농악도 이러한 민족문화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누런 황금벌판을 보여 주는 겨울 마음을 농악가래에 담아 내거나 이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는 농부의 모습은 맑고

은근한 것이 많아지면서 지적적인 면이 강해졌다. <돌아가야 한다/영 못 가리라 가을 아픈 고국/분수에 넘친 이역 황금 땅에서/생활과 문명의 노예로 묶여/향상 부끄럽고 죄스러워/다시는 인사마져 갈 면목도 없던/조국의 품에, 그러나/이젠 돌아 가야 한다.> (작품 <찬란한 빛 빛 도시로> 3편)

특히 제4부에서는 이른바 「광주사태」라는 대사건과 관련하여부터 제5부에서는 일련의 연시들을 통해서 많은 기원을 읊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몇가지의 변화같은 것이 있으면서도, 역시 황금주 시인이 읊조리는 것은 요컨대 고

▲『칼』은 펜보다 강하다 라고도 해야 할까. 우리의 언론 현실을 살펴볼때 더욱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수없다. 『보도 지침』이나 『보도요강』이나하는 말이 이런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외부의 마강한 『칼』에 의해 언론이 강경당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흔히 말하기를 『중무장한 군인 1개소대 정도면 언론사를 장악할수 있다』라고들 한다. 맞는 얘기다. 펜으로 막강한 총부리에 필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언론인들이 외부압력에 순응하고 복종함을 한다 면 언론은 더욱더 무력해진다. 하지만 언론을 지키려는 이들이 있을때 그 위력을 비로소 발휘된다. ▲지난 24일은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14주년을 맞는날이다. 유신철폐를 위하여 역눌리던 시절 동아-조선의 뜻

는 기자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저버릴수 없음을 통감하고 민족·민중언론으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역사적인 운동을 벌인 역사적인 날이다. 이들은 언론인 본연의 사명을 다하려 했다 는 이유만으로 독재권력과 그에 결탁한 경영주들에 의해 75년 3월 길거리로 쫓겨나고 받았다. 이들 동아·조선투위 소속 언론인들이 무려 1백50

「칼」보다 약한 「펜」 여령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언론은 또한차라리 「군발이」 들에 의해 또한차라리 수난을 겪는 것이다. 지난80년의 「사이비언론인 숙청」이라는 명목으로 신시권 정대위원의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 탄압으로 일지라를 잃은 수가 7백여명에 달하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경영주들은 「언론」은 포기해도 「언론사」

의 삶을 담은 민족문화는 조상 대대로 계승되어온 전통적인 고유문화이다. 이러한 민족문화는 자기발전의 궤를 그리며 현실을 풍자·비판하는 모습과 이를 개조해 나가려는 의식이 깔려있다. 또한 풍농과 풍어를 벌여 마을 공동체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도 담겨있다.

이 외에도 향토춤으로 빛어남과 사발춤 토속적인 냄새가 들끓고 있는 옛 정취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서글픈 일이다. 전통적인 문화 유산이 지금까지대로 가꾸고 보존되지 못해 훼손되거나 단절된다면 영원히 다시 시 이루어 낼수 없다. 흥겨운풍물가래에 절로 어깨를 덩실덩실치는 민족의 혼이 살아있다면 전통문화의 부리를 찾고 새로운 문화를 발전적으로 창조하는데 기쁨을 삼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황하늘, 고함시오, 그는 여전히<한참은>시인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 전편에는 일관하여 처절한 가락이 흐르고 있는듯한 느낌이 들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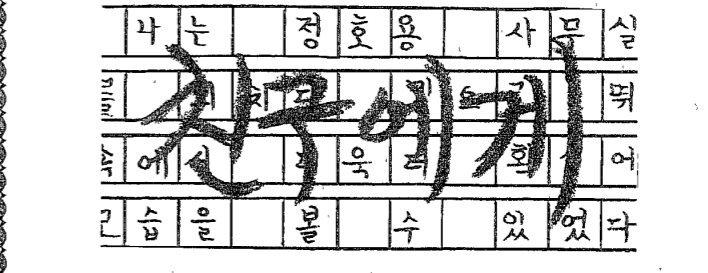
그간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이른바 본국정부의 <괴피인물>이 되었다 하는 말이 나온 시인들이 여럿있었다. 이번 황금주 시인의 작품집은 그런 시인의 작품들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해될수있었다.

張 文 平 <문학평론가>

정호용의원사무실 접거한 민한기(인철 4)君에게...

이제 너의 신념은 너만의 것이아니다. 현기, 만후에 접어드는 요즘은 누구나 다 인생을 생각하고 삶의 문제를 한번쯤 고민하게 되는것 같다.

인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특히 민족적 민족적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관을 가져야 할까? 인생관이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일것이다. 즉,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구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올바른 인생관은 민족적 민족적 입장에서 서서 살아가는데에서 삶의



보람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는 정호용 사무실 옮동을 잡고 구호를 외치다 민으로 뛰어내리는 너의 모습속에서 더욱더 확신에 찬 너의 삶의 모습을 볼수있었다.

이미 민주주의는 누구도 거역할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고 민족의 고통의 원천인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고난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수밖에 없다. 삶의 깨달음의 확신이 우리 민족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너의 확신과 신념이 너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민족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조건에 대해 고민하고 참다운 삶의 조건을 창출하는데 노력해야 할것이다.

현기, 너는 평소에도 확신에 넘치는 모습이다. 너에게 주어졌던 것을 풀어내는데 있어서도 확신에 찬 낙관적 결단이 이미 너에게 주어졌었다. 너의 결거소신을 접하면서 왜 내가 정호용 사무실에 들어가야 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민족의 고통스런 삶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 구조적 원인을 직시했는 것이다. 그 구조적 원인은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지고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너는 이 구할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고 민족의 고통의 원천인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고난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수밖에 없다. 삶의 깨달음의 확신이 우리 민족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너의 확신과 신념이 너만의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민족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조건에 대해 고민하고 참다운 삶의 조건을 창출하는데 노력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너는 이 구할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고 민족의 고통의 원천인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고난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수밖에 없다. 삶의 깨달음의 확신이 우리 민족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너의 확신과 신념이 너만의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민족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조건에 대해 고민하고 참다운 삶의 조건을 창출하는데 노력해야 할것이다.

선 태 삼 <불교대 인철과>

모퉁고릴라 만화보다 더 만화같은 세상



데에 울러지는 데에는 우선 약간의 무리가 있을듯이 보인다. 언어와 그림의 합일속에서이 최박한 땅을 웃음으로 꿰뚫어보려는 만화의 시도와는 달리 무대에 올려진 「고릴라」는 자칫 식상한 우화로써 끝나기가 쉽기 때문이다. 연출가는 「이제면 아무 통요없이 무심한 삶을 살고있는 우리가 고릴라적인 지 모르겠습니까...」라고 지적하면서 독특한 연출감각으로이 땅의 여러 정치상황의 한 상징물로써 고릴라를 등장시켜 새로운 해학을 시도하고있다. 그것은 곧 웃음이 마비되었던 경지된 이 체제속에서 숨겨진 것으로 작용되는 웃음과 화해롭게 만나고 있는 새로운 풍자의발굴인 것이다.

어 시각적인 보충설명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고릴라역에 「포기와 포수」 등의 작품에 출연한바 있는 강성해 씨가, 고수역에는 조동원씨가 각각 맡아 그들의 열연이 돋보이기도 했다.

지난17일부터 신신극장무대에 올려진 극단 오일하늘의 「보통고릴라」는 이미 널리 알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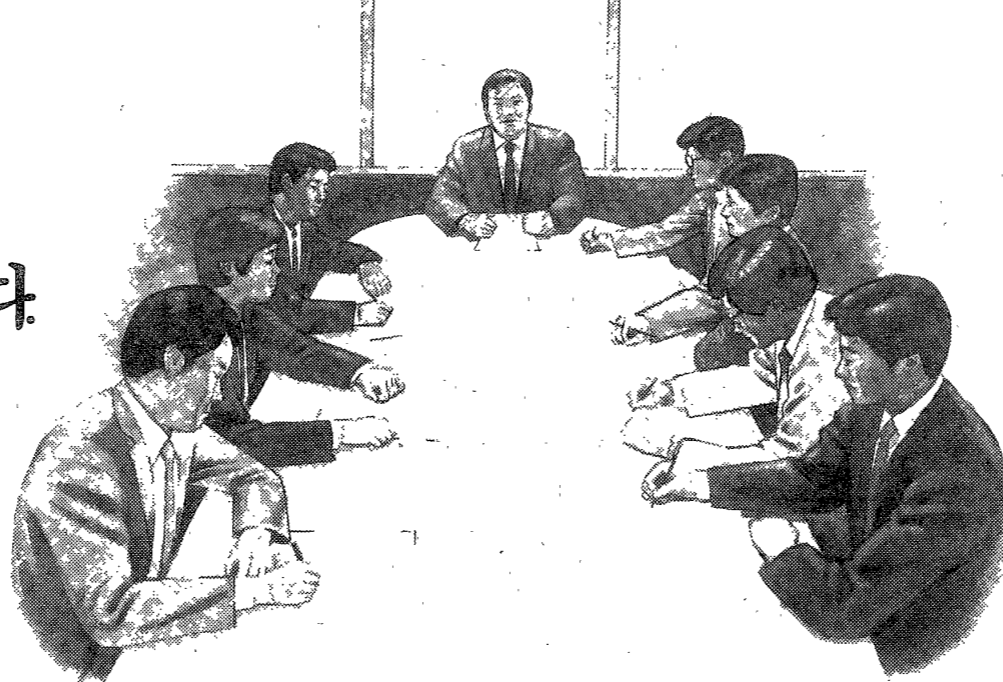
주안수씨의 정치풍자만화집을 남민하연출로 연극무대에 올린 작품이다. 전·노로 대표되는 군부독재와 권을 지원하는 미제, 권력 및 주연에서 기생하는 자본주의의 허구성과 이 시대의 본질을 조망하고 있는 만화집인 「보통고릴라」가 연극으로 무

모퉁고릴라 만화보다 더 만화같은 세상. 모퉁고릴라 만화보다 더 만화같은 세상. 모퉁고릴라 만화보다 더 만화같은 세상. 모퉁고릴라 만화보다 더 만화같은 세상.

모퉁고릴라 만화보다 더 만화같은 세상. 모퉁고릴라 만화보다 더 만화같은 세상. 모퉁고릴라 만화보다 더 만화같은 세상. 모퉁고릴라 만화보다 더 만화같은 세상.

두산그룹에서 즐겁게 일합니다. ③

9월30일 8명의 사원들이 모여 중역회의를 열었습니다.



소신이 통하는 두산그룹, 두산그룹은 젊은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원들의 중역회의? 네 그렇습니다. 사원들이 기획, 생산, 기술, 총무, 구매, 경리, 그리고 영업 등 해당 업무분야의 담당 중역이 되어 회사의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원가집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매달 열리는 이러한 회의의 결과는 물론 회사 경영에 직접 반영됩니다. 사원들에게 직접 경영의 기회를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두산그룹의 사원중역회의— 두산은 젊은 의견과 소신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이 젊음은 바로 미래의 주역이며 성장과 도약의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소신이 통하는 두산그룹, 소신이 통하는 곳에 성취의 보람이 있습니다.

두산그룹 로고와 '인화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슬로건. 그리고 두산그룹의 다양한 사업부 목록: 두산산업, 중앙맥주, 동산토건, 두산식품, 두산기계, 두산유리, 두산농산, 오리콤, 두산유업, 두산전자, 두산곡산, 두산제관, 오비씨그룹, 베리나인, 동아출판사, 동아인쇄공업, 백화양조, 한국네슬레, 동원건설, 오비베어스, 연강학술재단.